

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적 함의

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
이영숙 과장·박정환 분석관

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('18년 11%→'19년 15%→'20년 21% 예정)으로 지방세 비중은 2020년 25.0%로 상승될 전망이나, 국세수입 기반 약화 우려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기준, 신규세원 발굴 등 검토 필요

최근 지방세수 현황

- 지방세수는 2010년 49.2조원에서 2018년 84.3조원으로 연평균 7.0% 증가
 - 기간 중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, 취득세,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증가
 -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(부가가치세의 5%) 후,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한 이양비율(11%, +6%p) 인상 등으로, 2014~2015년 연평균 38.2% 증가
 - 취득세수는 2014년 주택분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,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2014~2015년 연평균 25.2% 증가
 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·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율 인상 등으로 2016~2018년 연평균 9.3% 증가
 - ※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율의 10%,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율의 10%로 과세

[표 1] 최근 지방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: 2010~2018년

지방세목	시행연도	내용
지방소비세	2010, 2014	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이양비율 인상: ('10)5% → ('14)11%(+6%p)
취득세	2014	9억원 기준, 2%/4% → 6억원 이하/6~9억원/9억원 초과, 1%/2%/3%
지방소득세	2010~2018	최고세율 기준: 개인지방소득세, ('10)3.5% → ('12)3.8% → ('17)4.0% → ('18)4.2% 법인지방소득세, ('10)2.2% → ('18)2.5%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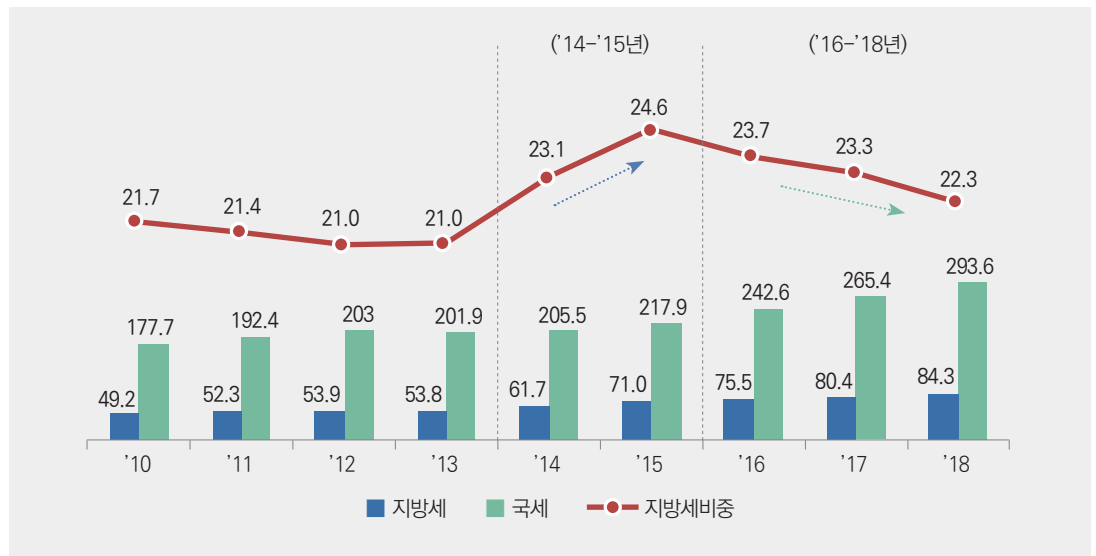
- 총조세(국세+지방세)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0년 21.7%에서 2015년 24.6%로 상승하였고,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22.3%를 기록

- 2014~2015년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높은 증가율로 지방세 비중 상승, 2016~2018년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심의 국세수입 호조에 따라 지방세 비중 하락

- 2014~2015년: 취득세 25.2%, 지방소비세 38.2%
- 2016~2018년: 소득세 11.6%, 법인세 16.4%

그림 1 지방세수 및 총조세 대비 비중: 2010~2018년

(단위: 조원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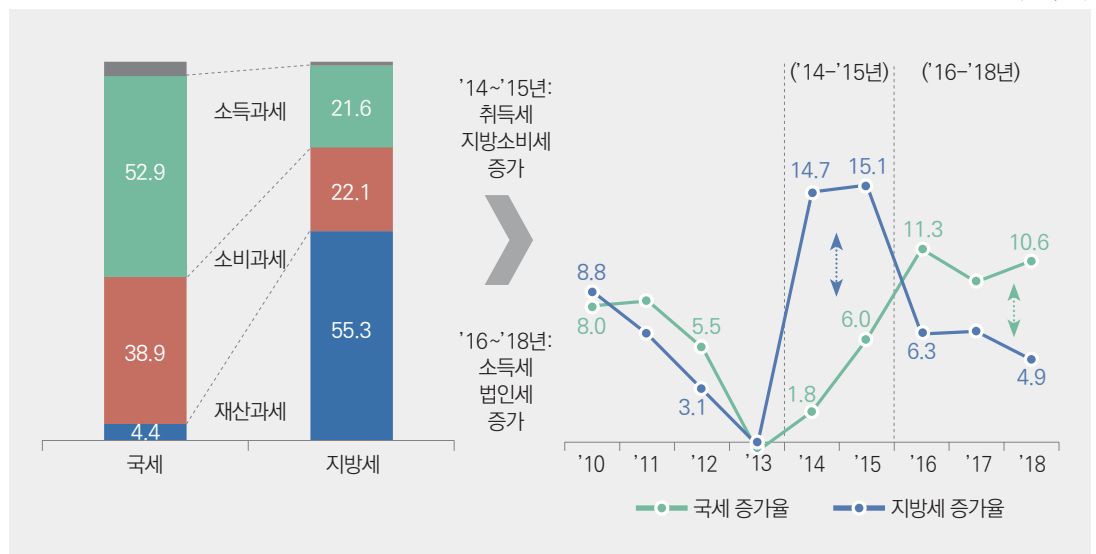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세청,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적 차이에 따라 세목별 세수요인이 총조세 비중에 영향

- 국세는 소득세·법인세 등 소득과세, 지방세는 취득세·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

그림 2 국세·지방세의 세원별 비중과 증가율 추이: 2010~2018년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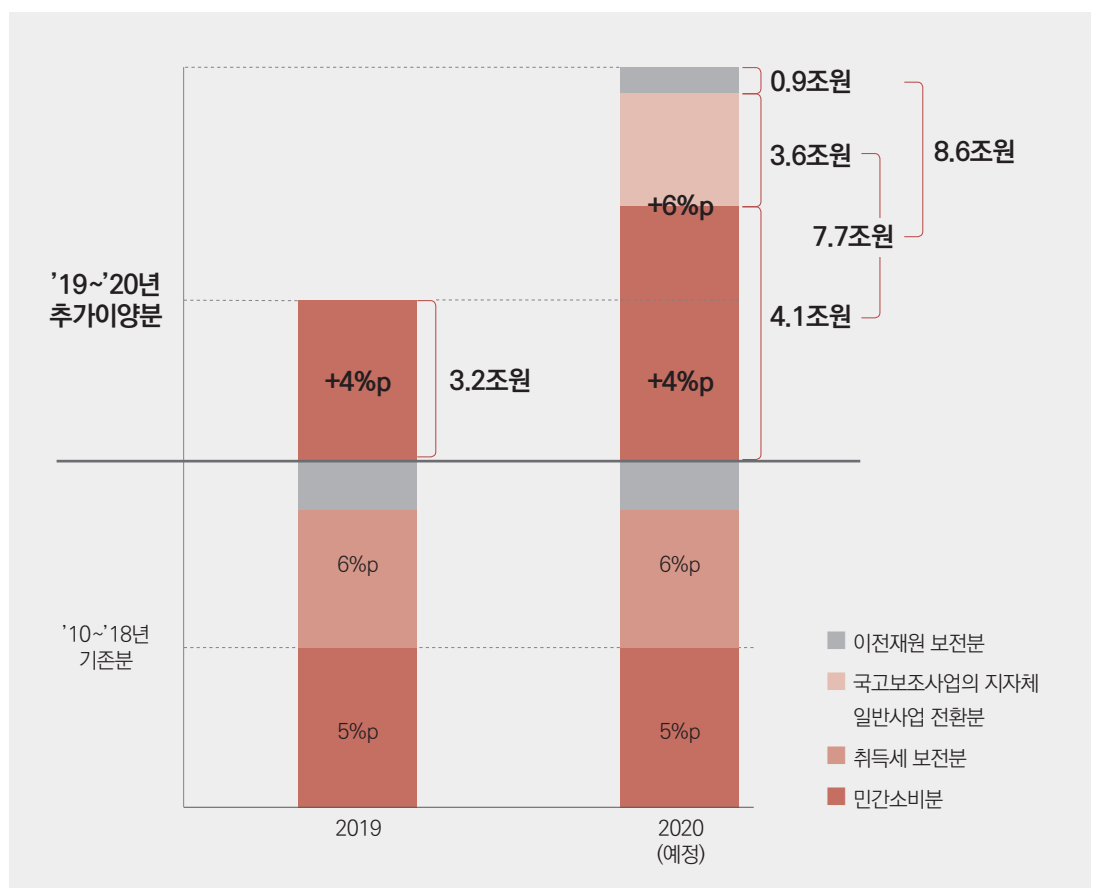
주: 세원별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, 세원별 과세 분류는 OECD 기준을 적용

자료: 국세청,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부가가치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수효과

-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2019년 3.2조원('18년 대비 +4%p), 2020년 8.6조원('18년 대비 +10%p)이 지방에 추가로 이양될 전망
 -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추가분은 “2020년 정부예산안”의 부가가치세 전망 2019년 81.2조원, 2020년 86.4조원에 이양비율을 적용하여 산출
 - 2020년 추가이양분 8.6조원 중 이전재원 변동분(0.9조원)¹⁾을 제외한 7.7조원이 지방소비세수에 포함
 -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분(3.6조원)을 제외한 나머지 약 4.1조원이 지방소비세의 실질적인 세수증가분에 해당
 - 지방소비세 추가이양분은 각 지역 민간소비 지표를 고려하여 배분하되, 2020년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분 등(4.5조원)의 지역배분 후 적용
 - 각 지역 민간소비에 지역별 가중치(수도권:광역시:도=1:2:3)를 적용해 차등배분 단, 2020년의 경우 수도권 지방소비세분의 35%는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여 재배분

그림3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추가이양분 구조: 2019~2020년



주: 1. 지방소비세 세수분은 2018년 대비값임

2. 화석부분은 이전재원 보전분으로 지방세수에 미포함

3. 기존 6%p분은 2014년 이후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,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수반되는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감소분을 보전

자료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19.6.3.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부가가치세 추가이양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수반되는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감소분을 보전

2019~2020년 지방세 비중 전망과 재정적 합의

● 지방소비세 추가확보에 따른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9년 23.1%(전년대비 +0.8%p), 2020년 25.0%(+1.9%p)로 전망

- “2020년 정부예산안”의 국세수입 전망치와 NABO의 지방세수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

• 국세수입(“2020년 정부예산안”): 2019년 294.8조원, 2020년 292.0조원

• 지방세수(NABO 추정): 2019년 88.8조원, 2020년 97.5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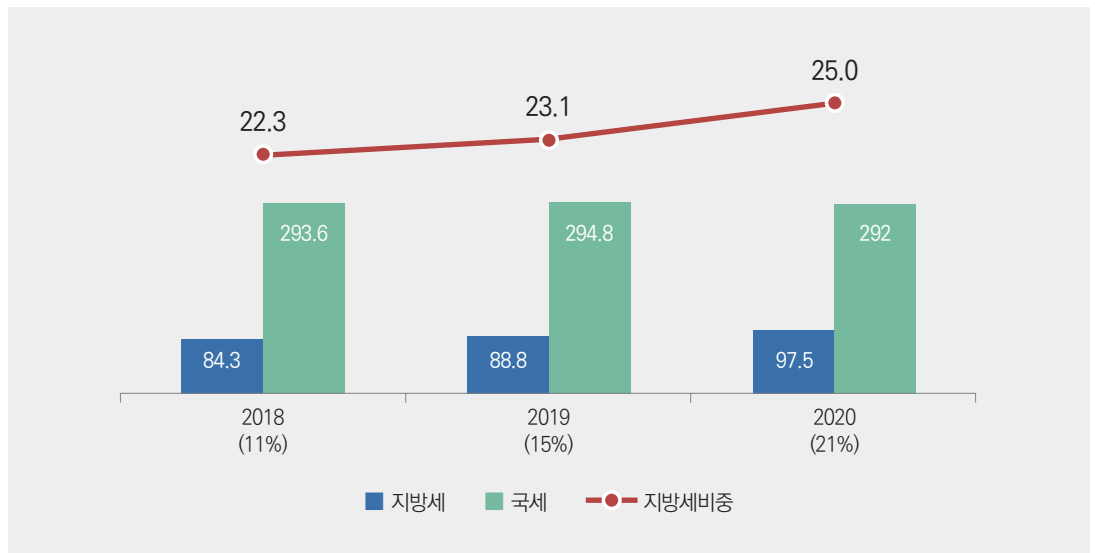
※ 지방세수는 최근 3년(16~18년)의 세목별 증가율 등을 이용해 추정

단, 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예산의 증가율을 적용

• 다만, 동 전망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시 향후 세목별 세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그림 4 지방세수 및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전망: 2019년~2020년

(단위: 조원, %)



주: 1. ()안은 해당연도의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

2. 2018년은 실적, 2019~2020년은 전망치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●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비율 인상으로 지방세 비중은 다소 확대될 것이나, 향후 국세 수입 기반 약화 등의 우려도 상존

-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일반재원으로서 국세수입 기반 약화 우려

• 최근 인구고령화, 해외소비확대, 인터넷 기반 거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 신장세 저하

- 지방세 수입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소득 및 기타과세 등에서 신규 세원 발굴 등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

• 세수의 안정적인 증가(신장성), 지역 기반·공공서비스 기능(응답성), 세원의 지역별 고른 분포(보편성)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 배분 검토